

# 무주군, 직통버스 증차요구

### 이해양 의원 5분 발언 이후 현실화 위한 공조 주력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대한 주민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실현은 무주에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출발하면 서울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버스증차와 함께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무주발 서울행 첫 차는 오전 9시 45분, 서울발 무주행 막차는 오후 2시 35분이며 왕복 5회가 운행 중이다. 무주발 첫 차 시간이 늦고 서울발 막차 시간이 빠른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전을 경유해야 한다.

주민 박 모 씨(58, 무주읍)는 “병원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울을 다녀야 하는데 버스시간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며 “첫차로 대전에 나가서 택시로, KTX로 갈아타며 서울까지 가야하니가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시간도 한참이라 증차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4월 11일 무주군의회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을 촉구했던 이해양 의원과 무주군은 4월 12일부터 전북도청을 비롯한 전북고속과 충남도청, 금남고속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내용들을 전달하고 사안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국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서울과 1일 생활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이해양 의원은 “현재 무주-서울 간 버스를 운행 중인 전북고속과 금남고속 간의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버스 회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주군민을 포함한 연간 이용객 1만 5천여 명의 입장을 헤아려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사간에 버스증차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무주발 첫차

(구천동 07:10, 설천 07:30)는 08:00, 서울발 막차는 18:00(무주 20:30, 설천 20:50, 구천동 21:10 도착)에 출발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관계자는 “전북과 충남 양도나 전북고속, 금남고속 양사와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 실현에 대한 기대도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따랐던 주민들과 무주여행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방문객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공영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하는 이용객은 연간 1만 5천명이며, 덕유산과 적상산,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의 명소 방문과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반딧불축제, 태권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와 행사 참여를 위해 무주군을 찾는 방문객들은 한 해 5백여만 명에 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멀리있어 더욱 깊어지는 가족愛

### 제1회 장수사랑가족화 사업 출향인 가족 소통 콘서트

장수군은 지난 11일 한누리전당 산대관에서 장영수 군수, 김종문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출향인 가족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을 통한 출향인들과의 소통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소통 콘서트는 케릴라 매지 풍선아트와 버스킹 공연,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메아리 합창단, 피코리 합창단, 시예슬원, 국악 신동의 퓨전 국악,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어머니 맞추기), 리조이스 콰이어 합창단 등의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블라인드에 가려진 부모님을 힌트로만 맞추는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가 웃음을

선사하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등 감동을 선사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행사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만나고 함께 가족애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출향 가족들 사이 중간 소통 역할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사랑 가족화사업은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SNS로 전송함으로써 부모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사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메아리

### 희망진안 국민아이디어 공모

진안군은 이달 말까지 ‘생각들이 모여라~ 진안이 행복해지게!’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공모 분야는 ▲아름다운 청정환경, ▲활기찬 지역경제, ▲일할만 문화관광, ▲행복한 교육복지, ▲신뢰받는 소통행정, ▲기타 희망진안 실현을 위한 제안 등 6가지다.

평소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는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직접 입력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자체심사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등급에 따라 시상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결과는 7월 중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후 제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백승업 기획감사실장은 “진안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작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 오늘부터... 입주 계약 후 군에 신청 접수해야

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13일부터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30년 임대 등 장

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주민은 입주 계약 후, 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은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063-350-2297)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2019년 농식품가공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 무주군, 농식품가공창업 교육 진행

###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주군이 2019년 농식품가공창업(기초)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마다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은 농식품 가공 창업자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희망하는 농가들이며 7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농산물 가공 산업의 필요성을 비롯해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마케팅 및 소규모 유통전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6회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진행할 예정으로 농식품가공창업 기초·심화반 교육을 모두 수료하

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반디파머스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을 직접 생산할 수도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진행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가공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7년에 495㎡규모로 조성됐으며 농산물을 세척, 착즙, 살균, 건조, 분쇄, 성형, 포장 할 수 있는 설비 49종을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농진청과 유기농 감자 병해충 공동 연구

진안군기술센터(소장 김필환)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와 함께 유기농 감자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현장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감자 더듬이병에 저항성을 가지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감자 품종 9종(추영, 고은, 하령 등)을 선발하여 시범적으로 진안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유기농 재배시험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유용미생물인 클로렐라(Chlorella fusca)와 항균미생물

(Paenibacillus sp.) 등을 이용하여 더듬이병 방제를 위한 유기농 자재를 선발하고 담배나방 등 트랩을 이용한 해충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수운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현장 연구는 친환경 감자 재배 농가의 병해충 피해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클로렐라와 같은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감자 품질 향상 기술도 개발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 감자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숯가꾸기사업 현장토론회

진안군은 상반기 숯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숯가꾸기 사업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최근 진행된 토론회에는 설계자, 감리자, 숯가꾸기 시행업체 현장대리인, 작업자, 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산림의 단계별·기능별 숯가꾸기 사업 중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한 설계 및 작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진안군은 올해 총사업비 약 5억3000만원을 들여 330ha의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를 실시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